

竹郷 담양서 세계대나무총회 열린다

2015년 개최 ... '세계 대나무박람회' 추진 탄력

죽향(竹郷) 담양군이 '제10회 세계 대나무총회' 개최지로 확정됐다. 2일 담양군에 따르면 지난 31일 세계 대나무협회(WBC)는 오는 2015년에 개최 예정인 '제10회 세계대나무총회(World Bamboo Congress)'를 세계 대나무 박람회 기간중에 담양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총회 개최 날짜와 프로그램 등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군은 '제10회 WBC' 개최지 확정에 따라 오는 2015년 6월 20일부터 7월 19일까지 30일간 죽녹원과 종합체육관 등 담양을 일원에서 열리는 '2015 담양 세계 대나무박람회' 추진에 탄력이 붙었다고 평가했다.

앞서 최형식 군수는 지난 4월 벨기에에서 열린 제9회 WBC에 직접 참가해 담양의 홍보영상을 통해 대나무와

함께한 담양의 역사와 대나무 산업에 대한 관심과 투자, 비전을 제시하며 제10차 세계대나무총회 유치에 호소할 바 있다.

또한 군은 WBC 개최 신청을 통해 담양이 대나무 생육에 좋은 지리·기후적 조건과 300여년의 죽세계에 역사 등 담양이 한국에서 대나무의 고장으로서 역할을 강조하는 한편 죽초역을 활용한 냄새저감장치 개발 등 군의 대나무를 활용한 신산업지원화 노력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자리 잡은 대나무축제를 비롯해 죽녹원과 대나무생태공원 등 대나무를 관광자원화해 군 전체를 생태관광의 도시로 변모시킨 점 등을 홍보하며 '대숲에서 찾은 녹색 미래'를 주제로 한 '2015 담양 세계 대나무



박람회'에 WBC 관계자들을 초대했다.

미셀 아바디 WBO 회장은 "2015 담양 세계 대나무박람회'는 대나무의 생태적, 문화예술적 기능과 과학·산업·건축, 녹색 발전을 포함하는 다양

한 전시관들로 구성, 대나무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박람회가 될 것이다"면서 "특히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과 워크숍, 제10회 WBC로 채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정재근기자 jrg@

노인 복지재단 추진

장흥군, 기초지자체 최초

장흥군이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노인들의 눈높이에 맞는 수준 높은 다양한 노인복지 사업을 펼치는 '노인 복지재단' 설립을 추진한다. 군은 최근 노인복지재단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열고 재단법인 명칭·설립취지서·정관(안)·사업 계획서 등을 심의했다.

군은 노인 복지재단 설립에 필요한 기본 재산으로 노인복지 기금에서 우선 2억원을 출연하고 2015년까지 10억원의 기본재산을 연차별로 조성할 계획이다.

군은 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남도에 신청서를 제출해 오는 10월 말까지 재단을 설립할 방침이다.

이명용 장흥군수는 "이번에 노인 복지재단 설립을 추진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며, 다양하고 전문적인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

기자 노트

"소를 제발 살려주세요." "소가 먼저입니까, 사람이 먼저입니까?"

강풍을 동반한 초대형 태풍 '볼라벤'이 광주·전남지역을 강타한 지난 29일 장흥군 전역이 정전됨에 따라 관내 축산농가들에게도 위기가 닥쳤다.

장흥군 장흥읍 신기리 한우농

들에게 일일이 물을 떠다 먹여야 했다. 장흥읍 등 지역은 만 3일이 지난 30일 오후에 전기가 복구됐고, 2일 오전에서야 비로소 군 전역에 전기가 공급됐다.

장흥을 비롯해 강진·해남·완도 등 도내 서남부 지역은 전기가 공급된 1960년대 이후 정전상태로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 정전

"제발, 소를 살려주세요"

가들은 이날 밤 한전 장흥지점을 찾아 조속한 전기공급을 호소했다. 태풍으로 인해 단전되며 한우들에게 물이라도 줄 수 있도록 정전 복구를 빨리 해달라는 축산농가들의 요청에 한전 장흥지점 측은 가

정과 직장이 우선이라고 축산농가들을 설득했다. 짐승인 소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생명으로 먹여 살려야 한다는 이들 농가들의 애절한 입장도 이해할만 했다. 이를 결

에서 지켜본 기자는 누구 권을 들어야 할지 막막한 심정이었다.

모터펌프를 돌릴 수 없게 된 축산농가들은 어쩔 수 없이 양동이 등을 이용해 1000여 마리의 한우



김용기 <중부취재본부기자>

이 되다보니 행정과 통신 모두가 마비된 암흑세상으로 변했다.

이는 정전 대응을 소홀히 한 정부와 한전에 1차로 책임을 따져야 하지만 무대 책임이라고 함박하는 지자체에게도 2차 책

임도 있다. 앞으로 '볼라벤'과 같은 대형 태풍으로 더 심한 정전 사태가 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전체적으론 막을 수는 없으나 재해예방 대비는 가능하다. 앞으로 정부와 지자체는 재해를 최소화하는 '유비무환'으로 '아비규환'(阿鼻叫喚)과 같은 정전 사태를 막는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

강진 전라병영성 내부 관아시설 대규모 발굴



1차 조사서 건물터 14곳·연못터 4곳·담·배수로 등 확인

강진군 병영면에 위치한 '전라 병영성'(국가 사적 제 397호)의 내부 1차 발굴조사에서 조선시대 대규모 관아시설이 발굴됐다.

강진군은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 (재)한울 문화재연구원에 발굴조사 용역을 의뢰한 강진 전라병영성의 내부 1차 발굴조사에서 조선시대 관아시설이 발굴됐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강진군은 오는 5일 강진군 병영면 성동리 발굴조사 현장에서 현장공개 설명회를 개최한다.

전라병영성은 성벽에 대한 발굴조사를 통해 대부분 복원된 상태고, 2011년 성 내부에 대한 시굴조사를 거쳐 올해 객사와 동헌, 내아 영역으로 추정되는 성의 북서쪽에 대한 정밀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발굴조사에서 조사지역 남측에서 정면 50m가 넘는 대규모 건물지가 노출되는 등 건물터 14곳과 연못터 4곳, 담과 배수로 등이 확인됐다. 이들 흔적은 2~3차례 증·개축된 중박 양상을 보이는 등 잔존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 병영성 가운데 보존 상태가 가장 좋은 강진 전라병영성은 도성이나 읍성과 달리 군사시설만 있던 군영성이다.

한편 강진 전라병영성은 조선시대 호남지방 53주 6진을 총괄하는 육군 총지휘부 본부마포도사가 머물렀고, 태종 17년(1417년) 축조돼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때 큰 역할을 담당했다 1894년 동학농민운동 때 전소돼 고종 32년(1895년) 폐영됐다.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

주민 의료봉사활동

k-water 나주 수도관리단

k-water 나주 수도관리단(단장 임웅택)은 오는 9일 나주시 다시면 다시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주민 500여 명을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실시한다.

이번 의료봉사활동은 k-water와 열린사회(이사장 고병석)가 공동

으로 다시·문평면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과 부녀자, 장애우,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진료과목은 노인인구가 많은 점을 감안 내과·외과·치과·한방·비뇨기과·통증클리닉 등 6개 과목 전문의 20여명이 참여한다. 이동편의를 위해 셔틀버스 운행과 간식 등도 제공될 예정이다.

/중부취재본부=정철현기자 chung@

전 북

'상습 침수' 군산시내 저지대

470억 투입 배수펌프장 등 확충

도, 장·단기 대책 마련

해마다 침수피해가 반복되는 군산 저지대에 대한 장·단기 대책이 마련됐다.

전북도는 총 470억원을 들여 상습 침수지역인 나운, 내항, 중동, 구암 등 4개 지구 저지대의 배수펌프장과 우

수 저류시설을 확충하고 배수관로를 개선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군산시 수송동에서 회현면에 이르는 농업용 배수로(6.3km)를 지방하천으로 지정, 경포천 유역의 홍수량 60%를 분담토록 할 계획이다.

군산시는 지형학적으로 시가지 22%가 서해 만조수위보다 0.5m 이

상 낮아 상습적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도심지를 가로지르는 경포천 경사가 매우 완만(0.03%)하고 서해 만조수위보다 경포천 홍수위가 1.55m 낮아 적은 비에도 침수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남원 삼동굿놀이

남원시 보절면 괴양리 주민들이 지난 1일 음력 칠월 보름인 백중(百中)을 맞아 전통 세시풍속인 삼동(三童)굿놀이를 재연하고 있다.

/전북취재본부=백성기기자 bs8787@

정읍 입암 시립묘지 10월 만장

30일간 사전예고제

정읍시는 10월께 입암 시립묘지 만장(滿場)이 예상됨에 따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일부터 30일간 사전예고제를 실시한다.

정읍시 입암면 연월리에 위치한 시립묘지는 1997년 총사업비 6억7000만원을 투자해 부지면적 3만4358㎡에 총 2768기 조성돼 매년 200여기

가 사용돼 왔다.

현재는 유공자묘지를 제외한 일반묘지 22기가 남은 상태로 10월 말께 만장될 전망이다.

정읍시 관계자는 "시립묘지 만장 후 국도와 마을간 시계차단을 위해 관백나무를 식재하는 등 묘지주변을 정비하고, 장기적으로는 공원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고 밝혔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대홍란

멸종위기 대홍란·백운란 내장산에 자생

생태환경 보호 나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대홍란'과 '백운란' 자생지가 내장산 국립공원에 발견됐다.

내장산 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종달)는 생물 보호를 위해 정확한 자생지점을 밝히지 않았다. 앞으로 자생지 생태환경을 보호관찰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생육 변화도 실패 계획이다.

'대홍란'은 난초과의 부생 식물로 제주도와 남부 도서지역에 자생하며 높이가 15~20cm에 이른다. 꽃은 7~8월에 줄기 위쪽에 2~6개 홍자색으로 핀다.

'백운란'은 난초과 다년초로 백운산, 경남 가야산, 전북 내장산 등에 분포한다. 높이는 4~10cm며 꽃은 7~8월에 1~3개의 흰꽃이 핀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백운란

단신

전주 낙과 배 팔아주기 직거래장터 개설

전주시청 직원 200여명은 최근 태풍 '볼라벤'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전주시 중동동 배 과수농가(23농가)에서 농가 일손 돕기를 진행했다. 또 오거리 문화광장에서는 낙과피해를 심하게 입은 배 과수농가(177농가·180ha)를 돕기 위해 낙과 배를 팔아주는

직거래 장터를 개설, 판매에 앞장섰다. 직거래 장터에서는 낙과된 배(7.5kg) 정상 판매가보다 45% 저렴한 1만5000원으로 구입할 수 있고, 필요한 만큼 남게 구입도 가능해 시민들로 부터 호응을 얻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군산 채만식문학관 자원봉사자 모집

군산 채만식문학관은 관람객들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의 문화주체로서 문화예술 중심도시 군산을 만들어 나가는데 함께 참여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대상은 만 19세 이상의 성인인

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자원봉사 희망자는 3일부터 10일까지 신청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전자우편 및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160명 규모의 채만식문학관은 군산시 내흥동 금강변에 위치하고 있다. 문의 (063-450-4541)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김제 '지평선 황금들녘 만들기' 이벤트

김제 지평선축제 제진위원회는 오는 10월 열리는 '지평선 축제'의 성공개회를 위해 전국 네티즌을 대상으로 '지평선 황금들녘 만들기'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 기간은 3일부터 10월 14일까지이며, 김제 지평선축제(festival.gimje.go.kr) 또는 김제시(www.gimje.go.kr) 홈페이지

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참여방법은 홈페이지 접속후 생성되는 팝업창의 '소원 글쓰기란'에 지평선축제의 성공개회 기원이나 개인이 소원하는 내용의 글을 남기면 참여자중 추첨을 통해 100명을 선정해 김제 특산품을 선물로 지급한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순창 저소득층 집고쳐주기 사업

순창군이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내년 1월까지 '2012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군은 이번 사업을 위해 251호의 사업물량을 도로부터 배정받아 총 6억2750만원(도비

50%·군비 50%)의 사업비를 들여 9월부터 본격 추진에 들어간다.

군은 지난 7월 희망자에 한해 신청접수를 받아 251세대의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지난달 건축사업자와 위탁계약 체결했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